



서유럽, PP시장 전망 밝아
기존 소재 및 플라스틱 대체 예상

최근 서유럽 PP 가격이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시장전문가들은 오히려 시장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지난 3년간 서유럽의 PP가격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올 상반기 중 이 지역 PP가격은 25~30%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올 하반기부터 가격이 다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향후 3년간의 가격도 전반적으로 현재 수준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달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국제플라스틱·고무전에 참가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서유럽 PP가격의 하락세를 별로 염려하지 않고 있다.

PP가격이 장기간 저점을 맴돌면서 PP의 용도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이 시장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낮은 PP가 대량으로 합성수지 시장에 유입되면서 PP가 기존 소재 및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유럽 제2위의 PP생산업체인 몽텔사의 경우 올해 자사의 PP 매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5~6%보다 훨씬 높은 9%에 달할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제3위 업체인 보레알리스사 관계자도 PP의



쓰임새가 다양해지면서 PP가 다른 유기고분자 재료(폴리머) 뿐 아니라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재료에 비해서도 시장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근년 들어 필름, 사출, 중공성형 등의 포장부문에서 PP의 용도는 괄목할 정도로 늘어났다. 특히 고속가공기계의 보급 확대를 계기로 필름부문의 PP 소비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고도의 세공이 요구되는 자동화공정이야말로 PP 장점이 최대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폴리에틸렌 수요·국제가 급등
가동률 95%까지 치솟아**

중국의 농업용필름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석유화학업체가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등 합성수지 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업체들의 재고가 거의 대부분 소진됐으며 가동률은 95%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0% 내외의 감산을 실시했던 국내 유화학업체들은 정기보수에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올 9월까지 HDPE 수출은 물량기준 37%, LDPE는 36.8% 증가했으며 LDPE의 경우 10월 한달 동안에만 무려 45.7%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폴리프로필렌(PP) 역시 41.9%나 수출이 증가해 올들어 9월까지 합성수지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44.3% 늘어난 3백89만톤을 기록했다. 이처럼 합성수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홍수피해 복구작업이 분

격화되면서 농업용 필름수요가 급증해 HDPE와 LDPE 등 일부 제품의 경우 가수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에틸렌 시장현황
아시아 위기로 가격 하락**

미국의 에틸렌 가격이 하락됐다.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아시아 위기로 분석되며 그 결과 미국의 주요 에틸렌유도체 수출 질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수요감소와 더불어 미국 에틸렌가격 역시 지난 수개월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98년 5월의 contract price는 파운드당 0.75cent 하락했으며, 이러한 하락 추세는 매달 연속된다.

**동남아, 폴리올레핀 시세 상승
중국의 수입량 증가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등 폴리올레핀의 동남아 시장이 중국의 수입량 증가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승세는 다른 석유화학제품에도 영향을 미쳐 그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중국은 올 여름 발생한 대홍수로 공급에 차질이 생긴데다 홍수복구 특수가 생겨 LDPE를 중심으로 구매의욕이 왕성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LDPE의 동남아 가격은 6백달러 안팎까지 상승, 지금까지 내리막이었던 아시아시황을 회복시키고 있다. HDPE 가격은 5백달러를 웃돌았으며 PP도 4백60달러 안팎까지 상승했다.



중국의 구매수요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 공급자의 감산과 대만공급자의 정기수리 및 플랜트 트러블 발생 등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그동안의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있는 것도 시황회복에 한 몫했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왕성한 구매는 중국 통화절하에 대비한 사재기 경향이 강했다는 견해가 짙어 앞으로 중국의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공급자의 감산철회와 정기수리완료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폴리올레핀 동남아 시황은 전망이 불투명하다.

Dow Chemical, Shell의 유럽 합성고무사업 매수 SBR 및 BR 분야 세계 상위업체 발돋움

Dow Chemical은 Shell Chemical로부터 이 업체의 유럽지역 범용합성고무사업을 매수하기로 했다. Dow Chemical의 유럽법인인 Dow 유럽과 Shell은 최근 Dow가 Shell의 폴리부타디엔고무(BR)와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 사업을 매수하기로 합의했다.

Dow Chemical은 97년 구 동독의 국영석유화학업체를 매입하면서 합성고무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매수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알려지고 있다.

Shell Chemical은 프랑스에 연산 5만톤의 폴리부타디엔 설비와 네덜란드에 10만톤의 유화중합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이들 설비는 Dow Chemical에 이관된다. 사업 매매거래는 98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Shell사는 이소프렌고무와 이소프

렌계 탄성중합체 사업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매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업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Dow Chemical은 코팅지 등에 사용되는 액상고무인 스티렌부타디엔 라텍스 사업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나 고품합성고무사업은 규모가 작았다. 다만 96년에 듀폰사와 협력해 탄성중합체와 합성고무 합작회사 'DuPont Dow 엘라스토머'를 설립하는 등 이 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력해 왔다. 또 97년은 주식의 80%를 취득한 구 동독의 국영석유화학업체인 BSL의 합성고무사업도 끌어들었다.

BLS의 석유화학콤비나트에는 연산 2만5천톤 규모의 BR설비와 7만5천톤의 유화중합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설비가 있는데 Dow는 일본 제온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오는 2000년까지 용액중합 SBR과 BR병산 설비(연산 6만톤)를 신설키로 했다.

Dow는 Shell사로부터 범용합성고무사업을 사들임으로써 BR과 유화중합 SBR 제품을 보완시키는 효과 뿐 아니라 기존 합성고무사업과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번에 매입하는 설비와 BSL의 기존설비 및 오는 2000년에 완공될 신 설비를 합쳐 이 업체의 연산능력은 31만톤에 달하게 되며 SBR과 BR 분야에서 세계 상위업체로 발돋움하게 된다.

일본, 페트병 인기 지속 용기포장리사이클법 대상 선정 후 주목

일본의 음료용기시장에서 페트병의 인기가 지

속되고 있다.

뚜껑을 닫아 간단하게 내용물을 보존할 수 있는데다 가볍고 휴대가 간편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용기포장리사이클법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리사이클시스템 구축의 한 모델케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페트병은 폴리에스터섬유 원료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공기압으로 성형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개발됐으며 일본에서는 70년대 후반에 간장용기로 등장했다.

일본 PET병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98년 페트병 생산량은 전년비 13% 늘어난 24만8천톤으로 3년 연속 두자리수대 증가를 나타낼 전망이다. 전체 음료용기 중 세어는 98년에 36%로 97년보다 7%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커피·과즙음료는 캔 사용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생수, 차 등은 페트병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용기 메이커들이 지난 96년 봄 400ml 소형병을 시장에 투입함에 따라 수요확대가 본격화됐다.

500ml병은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어 올해도 성수기인 봄에서 초여름까지 생산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품귀현상이 나타났다.

음료·용기업체는 지난 해 4월의 용기포장리사이클법 시행으로 용기재활용이 의무화됐으며 리사이클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수한 페트병을 세척, 분쇄한 다음 섬유로 재생해 작업복 및 드레스셔츠로 만들거나 전자재용 시트로 제조하는 메이커도 잇따라 탄생하고 있다.

2000년 4월엔 이법의 적용대상이 종이상자,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페트병 리사이클 동향은 다른 소재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폴리스티렌 공장 건설 잇따라 양자강 델타지역 최대 PS 생산단지 부상 전망

세계 유명 폴리스티렌(PS) 생산회사들이 중국 양자강 델타지역에 집중적으로 폴리스티렌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이 지역은 중국 최대의 PS 생산단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독일의 유명 화학회사 BASF와 중국의 양자석유화학회사는 투자환경이 좋은 양자강 델타지역에 연산 12만톤 규모의 스티렌공장, 10만톤의 일반 목적 폴리스티렌(GPPS) 및 고충격방지 폴리스티렌 공장, 그리고 4만톤 규모의 발포스티렌(EPS) 공장을 합작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 밖에도 60만톤의 에틸렌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대만의 치메이공업회사는 강소성 진강시에 30만톤 규모의 PS 생산시설을 건설했다.

미국의 다오(DAO) 화학과 일본의 아사히화학은 합동으로 이 도시에 12만톤의 시설을 건설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상해에 건설기로 계획된 65만톤에틸렌 생산공장이 정부의 허가를 얻었는데 이와 같은 시설이 모두 완료될 경우 연간 생산량은 100만톤을 상회하고 양자강 델타지역은 중국 최대의 PS생산단지가 된다.

한편 중국 남부의 광둥성에서도 PS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78년 이후 홍콩의 많은 PS 기업들이 광둥성으로 이전해 현재 이 지역은 PS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홍콩과 광둥성의 연간 PS생산시설을 합하면 62만톤에 달한다. 광둥성에 80만톤 규모의 외



자 에틸렌 생산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정부의 허가를 얻어 이 지역의 생산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중국에서 PS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주체는 모두 다국적 기업들이다. 다오화학과 BASF는 세계 최대의 2대 PS 생산회사이고 아사히화학은 일본 최대의 PS생산회사이다.

치메이회사는 세계 최대의 ABS 생산회사이고 세브론화학은 세계스티렌 모노머의 주요 공급업체이다.

**멕시코, 플라스틱생산장비시장 유망
생산성 제고 위한 노후설비 대체 전망**

멕시코 플라스틱 생산장비시장이 유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각국의 수출업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 멕시코 플라스틱장비수출은 지난 3년간 연 11.3%씩의 증가율을 시현할 정도로 이 시장의 호황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경제회복과 대 나프타 수출호조에 힘입어 포장, 건축, 자동차부품, 완구, 의류 및 신발 등 산업전반에 걸쳐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현재 멕시코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소비량은 21.6~26kg에 불과한 상태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멕시코업체가 평균 20년이상 사용된 플라스틱생산장비를 가동하고 있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설비의 대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미쓰이화학, 우레탄수지원료 생산능력 확대
2007년 기능성재료분야 매출액 6천억엔 목표**

일본의 미쓰이(三井)화학은 한국과 일본에서 이 업체 핵심사업인 우레탄수지 원료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중반에 오무타 공장의 TDI(트리렌다이소시아네이트)의 생산능력을 현재의 연산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또 한국에 있는 합작업체에서는 오는 2000년 초에 MDI(디페닐메탄다이소시아네이트)의 생산능력을 연산 3만톤에서 5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TDI는 주로 자동차 시트와 가구·침구용으로 쓰이는 연질·반경질 품에, MDI는 경질 우레탄 폼과 자동차 범퍼, 도료 등에 사용된다.

미쓰이화학은 앞으로 이들 제품의 아시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우레탄수지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 원료생산능력을 늘리기로 했다.

오무타공장에서는 설비를 부분적으로 고쳐 TDI 생산능력을 20% 늘리며 한국에서는 금호석유화학과 절반출자로 설립한 금호미쓰이화학의 MDI 생산능력을 70% 정도 늘리게 된다. 또 오무타공장의 MDI설비(연산 6만톤)는 한국에서 MDI 증설 후 상황을 보면서 2만~4만톤 증설할 계획이다.

미쓰이화학은 우레탄수지 원료사업으로는 일본에서 업계 1위의 자리에 있다.

이 업체는 오는 2007년도에는 기능성재료분야의 매출액을 6천억엔까지 높일 생각이며 이중 우레탄수지 원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단기적 LDPE 수입위축 전망 중장기적 안정적 규모확대 예상

콜롬비아 LDPE 수입이 위축될 전망이다.

콜롬비아의 플라스틱 레진 생산규모는 56만8천톤 내외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LDPE 레진은 5만6천톤을 차지하고 있다.

콜롬비아 플라스틱 산업은 인근 중남미 국가 대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90년대 초 경제 개방과 함께 빠르게 수출산업으로 변신해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콜롬비아의 플라스틱 레진 수요량을 종류별로 보면 PE(LDPE, HDPE) 수요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PVC 제품이 25%, 프로필렌 화합물, 폴리스티렌이 각각 18%, 8%를 차지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3.5kg으로 아직 국제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로 중장기적으로 소비증가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국제금융, 외환위기 여파가 중남미 지역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콜롬비아에도 이자 및 환율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수입 부문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LDPE 수입규모는 96, 97년 2년간 연간 5천8백만달러 규모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수입실적이 5천2백만달러에 이르는 등 수입신장률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수입규모는 8천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주 수입선은 미국과 베네수엘라로 각각 41.4%, 35.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는 러시아의 금융위기와 고금리정책 영향 등으로 가격인상 및 수요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콜롬비아 LDPE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위축이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규모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상품의 경우 품질은 미국산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원거리 수송에 따른 가격 경쟁력 잠식과 납기 등 문제가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발포스티로폴 리사이클 시스템 개발 저팬트러스트 어소시에이션, '쥬논시스템' 명명

일본 저팬트러스트 어소시에이션은 사용이 끝난 발포스티로폴이 그대로 용제에 의해 신속히 용해되고 또한 용제와 99.9% 이상의 높은 비율로 분리하여 원래 분자와 변함없는 성분을 보존한 비스상으로 되돌리는 리사이클 시스템 '쥬논시스템'을 개발했다.

중핵기술이 되는 용제는 메틸알코올계의 변성으로 화학변화를 거치지 않고도 안전하게 발포스티로폴을 용해시킨다.

1회 리사이클처리의 용제손실은 3~5% 정도이며 용제는 리스로서 회수박스와 회수차, 중류분리설비는 판매형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려고 한다.

쥬논시스템은 발포스티로폴 원료수지의 품질을 거의 떨어뜨리지 않고도 리사이클이 가능하다. 메틸알코올계 용제가 들어간 액체에 발포스티로폴을 투입하면 순간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용해한다.



이전에도 용제로 녹이는 시스템은 있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발화점이 낮아 위험하거나 재생비스의 품질이 떨어져 용도가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메틸알코올계에 의한 용해장치는 용제가 수용성이 아니어서 비중이 1.3~1.4로 물보다 무겁고, 용제의 상층에 물을 넣고 덮어 알코올의 휘발성을 막는 이외에 냄새도 커버한다. 용제의 발화점은 660℃로 방폭기구는 필요치 않다. 용제에 40%의 중량비로 용해시킨 발포스티로폴은 종류분리장치로 용제를 수지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분리한다.

동 장치는 진공 하에서 수십℃의 조건에 의해 순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써 재생된 수지는 거의 원래대로의 성질을 얻게 된다.

회수한 발포폴리스티렌은 120℃ 정도에서 가열하면 펠릿상으로 되 돌아온다.

한편, 저팬트러스트 어소시에이션에서는 분리장치의 실증설비도 완성했는데 실용화단계에서는 용제 1kg에 400엔 전후를 예정하고 있으며 분리설비의 규모는 한 시스템에서 하루 처리량 500kg~1톤으로 보고 있다.

발포스티로폴이 대량 발생하는 장소 가까이 용제처리장치를 두고 회수차를 이용해 분리장치로 운반하는 시스템도 확립할 생각이다.

일본, 유통기간 50% 연장 종이캔 선보여
 돗판인사쓰사, 투명세라믹스 증착필름 코팅 배리어층 개발

일본의 돗판인사쓰사가 투명세라믹스 증착필름을 종이용기 내면에 코팅하여 배리어층을 개량하고 또 내용액체 충전시의 질소충전방법을

개량함으로써 유통기간을 현재의 1백20일에서 1백80일로 50% 연장한 종이캔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배리어층은 실리카알루미나계 증착필름으로 최적 조건에서 코팅함으로써 가스투과량과 산소투과량을 기존 제품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또한 빈공간에 질소를 충전하는 방법을 개량하여 잔존 산소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데도 성공했다.

이 용기는 탄산음료를 제외한 액체에 거의 대부분 적용할 수 있으며 자판기판매도 가능하다.

또 알루미늄캔과 스틸캔의 사용이 제한된 병원 등에서도 많이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주), 신문윤전기 공급준비
 10년내 윤전기시장 리더 목표

프리프레스장비, 매엽인쇄, 후가공 장비를 공급하는 하이델베르크(주)는 하이델베르크 신문윤전기 제작 및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메돈 회장은 프랑스 파리근교에 있는 몬타테의 연설회에서 하이델베르크는 신문윤전기를 모든 사이즈별로 최고의 품질을 원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레스 팩밀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이델베르크는 오렌기간 인쇄기계 개발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현재까지 약 7백유니트(1백대)에 달하는 신문윤전기를 설치, 공급했다.

이 회사는 2년후 드루파 2000에서 새로운 신



문윤전기를 소개할 예정이다.

하트 메돈 회장은 "우리는 5년내에 세계 굴지의 운전기제작 공급사의 계열에 진입할 것이며, 10년 내 운전기 시장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운전기는 종이소비와 플레이트 소비를 절약, 빠른 미래의 신문에 대한 시장요구에도 적극 부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의 신문은 더 많은 컬러와 이미지로 만들어질 것이며 소비자의 욕구에 충실하기 위한 지역화가 될 것이고 새로운 소식을 얼마나 빨리 받게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하이델베르그는 신제품 개발은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으로 전세계 약 90여개의 출판사 및 신문사와 연계 그들이 요구하는 생산과정에 적합한 장비를 제작해 왔다.

하이델베르그는 이미 지난 2년전부터 인쇄기의 신세대 변환을 준비해 왔으며 60여명의 기술진들이 현재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이델베르그는 오프셋인쇄기 부문의 리더로 약 44%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새로운 제작, 개발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그리고 블랑켓 실린더의 카날리스 방식은 현재에도 세계 600이상의 유니트에 설치 사용되고 있다.

차별화로 업계 선두주자인 하이델베르그는 인쇄공정 전라인의 토탈솔루션을 실현해 왔으며 프리프레스의 라이노헬 및 스탈 등 인수는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으며 전세계 170여국 240개 지점망을 통해 판매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환경호르몬 색출 방법 착수 자동분석장치 이용, 1~2년 내 지정 계획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생물의 생식기능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 '교란화학물질(환경호르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EPA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생물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고 환경호르몬의 의심이 가는 물질을 가려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화학, 제약회사 등과 제휴해 우선 1만5천종류의 화학물질을 분석하고 의심스러운 물질을 밝혀낸 다음 규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 조사를 위해 이미 미국의 OSI제약사와 제휴해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초제 등에 사용되고 있는 75종류의 화합물을 예로 들어 호르몬의 역할이 어느 정도 교란되는지 측정하고 있기도 하다.

유럽, 펄프·제지업계 불황심각 유럽 제지업계 인수합병 움직임 활발

올해 유럽의 펄프·제지업계가 심각한 불황속에 빠져 있다.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여파로 펄프·종이수요는 격감한 반면 제조업체의 생산물량은 늘어나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브뤼셀 소재 유럽제지산업연합회(CEPI)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역내 국가들의 펄프생산량은 전년비 10% 증가한 3천3백만톤에 달했다.

특히 유럽펄프생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펄프생산량은 각각 1천1백



만톤 수준에 이르러 전년비 6.6%, 14.4%씩 증가했다.

또 이들 국가보다 생산규모는 작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의 펄프생산량도 70% 이상씩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역내 생산량이 전년비 8.4% 증가한 종이·판지 부문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의 종이·판지 생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지난 해 생산량은 전년비 8.2% 증가했다. 또 핀란드의 생산량은 무려 16%나 늘어났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물량도 8%씩 증가했다. 그리스만이 역내에서 유일하게 종이·판지생산량이 감소한 국가로 기록됐을 뿐이다.

이처럼 공급과잉의 후유증이 심각해지자 대부분의 펄프제조업체들은 수주간의 조업중단을 단행함으로써 재고를 소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제지업계 역시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인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제지업계는 최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저가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의 에카케미칼(EKA CHEMICAL)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계 종이시장에서 아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편이기는 하나 최근 급속도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제지업계의 인수합병 움직임은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94년 이래 역내에서 이뤄진 제지업체 간의 빅딜 사례만도 14차례나 되며 특히 현재 추

진 중인 스웨덴의 스토라(Stora)와 핀란드의 엔소(Enso) 간의 합병여부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사간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연산 1천2백만톤의 제지공장이 탄생, 이 회사가 미국의 인터내셔널 페이퍼사 다음 가는 세계 제 2위의 임산재별로 균립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불황기를 맞이하여 유럽펄프업계가 펄프원재료로써 브라질산 유칼립투스목의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거리다.

이 수종은 이미 포르투갈, 스페인 등지에서 상당량이 식목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향후 가격이 비싼 서유럽산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첫 플라스틱 병맥주 시판 밀러맥주 지난 달부터 적용

미국 맥주업체로는 처음으로 밀러 맥주가 지난 달부터 플라스틱병 맥주를 시판하기 시작했다.

이는 밀러 맥주사가 판로확대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음료수와 마찬가지로 유리병 반입이 금지된 지역이나 경기장, 해변 등 공공지역에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새로 시판된 플라스틱 병맥주는 병마개를 돌려서 열게 되어 있고 입구가 기존병보다 더 넓다고 밝혔다. [K]

「월간포장계」 정기구독신청
02-835-9041